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학년 1 반 5 번 이름: 이태웅

소감문(사진첨부 가능)



제일 처음에 불갑사를 갔다 불갑사 앞에서 꽃을 보았다 꽃은 핑크색으로 상사화란 꽃이었다 상사화에도 종류가 7정개 정도 있다고 했다 9월달 영광에서 열리는 상사화 축제에서 여러가지 상사화를 볼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7개 마다 이름이 다른데 같은 종류라 상사화 축제라고 한다고 하셔서 나는 상사화란 꽃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도 종류가 7개가 있다고 하니 놀랐다 다음은 내산서원 내산서원은 안내리고 보기만 하고 지나갔는데 강함 선생님의 동상을 봤는데 딱그냥 멋졌다 그냥 멋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불교도래지를 갔다 간다라 유물관에 들어갔다 옛날 유물처럼 보이는 유물이 많이 있었다 불상처럼 보이는게 있었는데 몸가 웃음이 나오면서도 인자하게 생겼다 살짝 웃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다 마지막으론 미르 목장에 갔다 가서 맨처음엔 소독을 했는데 소독하는곳 안이 더우면서도 답답했는데 위에서 바람같은데 나와서 신기했다 소독을 하고 스트링 치즈를 만들었는데 커트를 놓여서 길게 늘어뜨리는데 손느낌이 알갱알갱 해서 좋았다 동물을 보는데 도끼가 제일 좋았다 귀여워서 개문고 싶었다 피자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싫었는데 급고 먹어오니 야채 맛이 아니어서 좋았다 맛있게 많이 먹었다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이 신의 한수처럼 완전 맛있었다.